

지역 매아리

완주 소양면, 사랑드림과 업무협약

완주군 소양면(면장 정재운)이 맞춤형 복지사업 활성화와 복지사각지대 지원의 일환으로 청춘 레스토랑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지난 12일 소양면은 관내 노인요양기관 사랑드림(인산복지재단)과 청춘 레스토랑 프로그램을 열고 어르신들께 특식(곰탕)을 제공했다.

청춘 레스토랑은 매월 1회 시설 어르신과 관내 저소득층 어르신들을 초대해 평소 이용이 쉽지 않은 레스토랑 분위기에서 특식을 제공해 특별한 하루를 경험하고 삶의 활력을 되찾아 주기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초대받은 해월리 유모 할머니(87세)는 "집에서 늘 같은 식사를 했는데, 이렇게 초대받아 분위기 좋은 곳에서 여럿이 어울려 특별한 음식을 먹으니 몸과 마음이 젊어지는 것 같다"며 감사함을 전했다.

정재운 소양면장은 "사랑드림과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다양한 노인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가겠다"며 "저소득층과 소외계층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관심으로 행복한 소양면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노인의 날 기념행사·한마당 축제

김제시는 지난 12일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하고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계승하기 위해 지평산케이트볼구장 및 야외광장에서 대한노인회 김제시지회(회장 이종선) 주관으로 관내 어르신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노인의 날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준배 김제시장을 비롯해 은주현 김제시의회의장, 황영석, 나인권 전북도의회 의원 등 많은 내빈들이 어르신들을 축하하고 격려했다.

특히 기념행사에서는 고령화시대에 발맞추어 모범적인 노인상을 정립하고 전통 경로효친 사상을 앙양시키며, 사회봉사활동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인 모범 노인 13명, 노인복지기여자 4명과 부랑면 신정 한울타리행복의 집은 서로 돕고 화합해 비탈진 독거노인 한울타리 행복의집 운영으로 모범 경로당상을 수상해 눈길을 끌었다.

박준배 시장은 "지난 날 많은 역경을 극복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헌신해 오셨으며 오늘의 김제를 만드는데 큰 공헌을 하신 어르신들께 감사의 표하며 항상 한결같이 어르신 곁에서 힘이 돼주는 정의로움 김제를 만들겠다며 그동안의 시름을 잊고 한자리에 모여 마음껏 웃고 즐기는 흥겨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노인의 날'은 어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 사상을 확산시키고 어르신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정 기념일이다.

/김제=곽노태 기자

식민지시대 '미래의 길'을 묻다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개관 20주년 특별전시

내년 6월 30일까지 진행

김제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이 개관 20주년 기념과 제 20회 지평선축제를 기념해 특별전시, '식민지시대에 '미래의 길'을 묻다'를 개막했다.

이번 특별전시는 2018년 10월 5일에 개막해 2019년 6월 30일까지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군산 동국사·JTV 공동주최로 진행되는 중이다.

이번 전시에서는 풍요로워서 서툰 땅, 호남 김제민경의 일제강점기 수탈사와 군국주의 일본의 황국신민화 정책, 광복한 일본의 제국주의 전쟁과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

전시는 총 8개의 꼭지로 구성되어 일제강점기를 추적하는 과거여행으로, 첫 번째, 군산의 나라즈게, 두 번째, 풍요로워서 서툰, 김제, 세 번째, 나라를 잃다, 네 번째, 수탈 수탈 수탈, 다섯 번째, 그들의 나라, 황국신민(皇國臣民), 여섯 번째, 그들의 꿈, 군국(軍國), 일곱 번째,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빛나는 별들, 여덟 번째, 미래의 '길'을 묻다로 전시하고 있다.

현재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 특별전시는 미래를 짚어질 젊은이와 청소년들에게 일제강점기라는 엄혹한 시기를 제대로 알리고 그 바탕 위에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보자는 전시취지를 충실히 그려내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암흑의 시기를 체험할 수 있도록 대형 전시연출로 현장감을 더했다. 김제 백구 부농농장의 일본인 쌀산적 연출(실물사이즈 7.2*4.7m),



김제 벽골제농경문화박물관이 개관 20주년 기념과 제 20회 지평선축제를 기념해 특별전시, '식민지시대에 '미래의 길'을 묻다'를 개막했다.

전시관 내부의 대형 목일기와 일장기 등, 일제강점기 내내 조선인을 짓눌렀던 제국주의와 전쟁의 구호들로 그 시기를 재현했다.

전시도입부의 대형 쪼개통(桶) 위에 목일기는 군산이 김제민경의 쌀을 일본으로 실어가는 수탈의 흉통이자, 군산에 세워진 일본인 청주공장의 부산물인 주박 장아찌, 일명 군산 나라즈게가 식민지시대 유산임을 보여주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재향군인회는 지난 12일 금산면 출신인 육탄 삼용사(古)안영권 하사 산화 66주기를 맞아 금산사 입구 전공 기념비에서 흉상 제막식과 추모행사를 거행했다.

故 안영권 하사 흉상 제막식 거행

김제시 재향군인회

66주기 추모식 행사

김제시 재향군인회(회장 박영봉)는 지난 12일 금산면 출신인 육탄 삼용사(古)안영권 하사 산화 66주기를 맞아 금산사 입구 전공 기념비에서 흉상 제막식과 추모행사를 거행했다.

(古)안영권 하사를 비롯한 3명의 용사는 6.25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10월 12일 백마고지 전투에서 고지탈환을 위해 몸에 TNT수류탄과 박격포탄을 묶고 적진에 뛰어들어 장렬히 자폭함으로써 막혔던 아군의 작전 행로를 뚫어 승리를 거두게 한 용사들로 정부에서는 이들을 '삼군신'이라 명명하고 있다.

이날 추모행사에는 이들의 넋을 기리고자 박준배 김제시장과 은주현 시의회의장, 황산우 전라북도 서부보훈지청장, 김효순 교육장 등 기관 및 단

체장, 유가족과 시민 등 1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으며 2014년 10월 국가보훈처로부터 (古)안영권 하사가 6.25 전쟁영웅으로 선정된 이후 현재까지 고향 김제에서 추모제가 규모 있게 진행돼 왔다.

그리고 이번 66주기 추모식에서는 (古)안영권 하사를 기리는 흉상 제막식이 거행돼 추모의 의미를 더했다. 김제시재향군인회 박영봉 회장은 추념사에서 "안영권 하사의 명복을 빌며 추모제를 주관하게 되어 영광스럽다"면서 슬픔과 그리움을 안고 살아오신 유가족에게 깊은 존경과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박준배 시장은 추모사를 통해 "안영권 하사의 불굴의 투혼이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지켜냈듯이, 우리도 그분의 뜻을 받들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데 앞장서자"고 강조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의회, 관내 주요 사업장 5개소 점검

김제시의회(의장 은주현)는 제222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11일 관내 주요 현안 사업장 5개소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이날 의원들은 재활용 선별장 운영관리 실태 점검을 시작으로 김제육교 재가설공사,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 함초가공 식품사업, 음식물류 자원화시설을 차례로 방문해 관련공무원과 공사관계자로부터 사업현황을 청취하고 사업추진과정의 문제점과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현장 토론회를 펼쳤다.

첫 번째 방문지인 재활용 선별장에서 의원들은 전주권광역소각장 시설 노후화로 적체된 생활쓰레기 5,000톤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침출수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선별장 환경 및 시설개선 공사 추진을 촉구했다.

특히 김제육교 재가설 공사현장에서 의원들은 2016년 1월 설계용역실시 이후 2018년 4월 공사착공 기간까지 육교 주변 상인의 경제적 손실과 주

민들의 교통 불편이 충분히 예측가능했음에도 집행부가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주민과의 소통에 인일일하게 대응해 피해를 더 키웠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공기관측, 우회도로안전성 확보 및 시민과의 소통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어 함초 가공식품 지원사업장에서는 보조사업의 효과가 농가소득 증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조사업 추진 시 철저한 사전계획수립과 검토를 주문했다. 전북형 농촌관광 거점마을 육성사업장에서는 지역에 맞는 체험 프로그램 개발로 농촌관광을 활성화하는 한편 마을 주민 편의 증진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은주현 의장은 "앞으로도 지역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주요 사업현장을 직접 찾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파악해 대안을 제시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군-한국전기안전공사 공동체 활성화 '맞손'

도내 첫 사례... 사회적 가치 실현·지속가능 상생 협력 다짐

완주군과 혁신도시에 소재한 공공기관인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을 맺었다. 도 내에서는 첫 사례다.

지난 12일 완주군은 한국전기안전공사 5층 창조홀에서 박성일 완주군수, 조성완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 각 기관 간부 10여명, 지역주민 이일규(용진읍주민, 2권역 공동체교류협의회장), 이주갑(구이면 주민, 1권역 공동체교류협의회 부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주민과 지속가능한 상생 협력을 위해 앞으로 함께 노력하기로 협의했다.

이날 협의를 통해 양 기관은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며 지역 공동체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협업, 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그 일환으로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지역주민과 소통하기 위해 오는 27일과 11월 3일에 권역별 개최 예정인 '공동체 어울림 더울림 한마당 축제'에도 참여한다.

또한 공공기관으로는 처음으로 전기안전공사 홍보관을 운영한다. 이에 앞서 지난 9월,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아파트 공동체 사회적 가치 실현

사업인 '공동체 가치플러스사업(찾아가는 재능기부사업)'과 '공동체발상(행정 사각지대에 놓은 주민을 대상으로 반찬 나눔)'에도 동참해 자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푸르밀 우유를 지원한 바 있다.

박성일 완주군수는 "사회적가치실현은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며 "완주군과 한국전기안전공사가 함께 공공의 이익을 창출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으로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지자체와 공공기관이 함께 노력해 행복하고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들자"고 말했다.

/원주=이종복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Advertisement for 'Hongsamju' (Red Ginseng Wine) by Jinan Gwon. Features images of ginseng roots and bottles of the wine. Text includes '대한민국 홍삼 특구 진안고원' and '세계주류품평회 금상'.